



美 '18.4분기 경제성장률 2.6%, 견조한 성장세

□ (현황) '18.4분기 미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며 성장세 견조

- 4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와 비주택 부문 민간투자가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면서 2.6%(전기대비연율) 기록
 - (소비)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으나, 자동차 중심의 내구재 소비(5.9%)가 소비 성장을 견인하며 여전히 견조한 모습(성장기여도 1.9%p)
 - ※ 소비('18.3Q → 4Q, %) : 내구재 3.7 → 5.9 / 비내구재 4.6 → 2.8 / 서비스 3.2 → 2.4
 - (투자) 장비(6.7%), 지식재산권(13.1%) 등 비주택 부문에서 크게 성장, 주택 부문 투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
 - (수출)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으나, 수입 증가세가 이를 넘어서며 순수출은 마이너스 성장 기여

⇒ '18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및 '15년 이후 최고치인 2.9%를 기록

※ 경제성장률(%) : 2.6('10) ⇒ 2.2('12) ⇒ 2.5('14) → 2.9('15) → 1.6('16) → 2.2('17) → 2.9('18)

< 부문별 경제성장률 >

(단위 : %, %p)	2016	2017	2018				연간
			1Q	2Q	3Q	4Q	
경제성장률	1.6	2.2	2.2	4.2	3.4	2.6	2.9
소비	2.7	2.5	0.5	3.8	3.5	2.8	2.6
민간투자	△1.3	4.8	9.6	△0.5	15.2	4.6	6.0
비주택	0.5	5.3	11.5	8.7	2.5	6.2	7.0
주택	6.5	3.3	△3.4	△1.3	△3.6	△3.5	△0.2
순수출*	△0.3	△0.3	△0.0	1.2	△2.0	△0.2	△0.2
수출	△0.1	3.0	3.6	9.3	△4.9	1.6	3.9
수입	1.9	4.6	3.0	△0.6	9.3	2.7	4.6
정부지출	1.4	△0.1	1.5	2.5	2.6	0.4	1.5

주 : 전기대비연율, *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, 자료 : BEA

□ (평가) 증가 속도 둔화는 이례적인 경기호황에 따른 기저효과('18.2Q, 3Q), 여전히 안정적인 경기흐름을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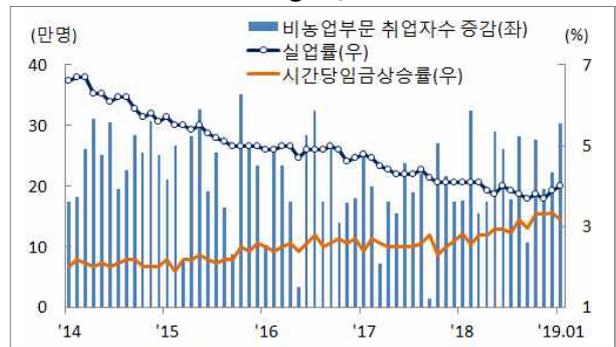
- 4분기 경제성장률은 연방정부 셋다운('18.12.22~'19.1.25일)으로 0.1%p 감소(BEA)
- 하지만, 소득 증가와 함께 고용여건 호조가 소비여력을 뒷받침하여 급격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
- 12월 소매판매(△1.2%, 전월대비)의 급감으로 소비 위축 가능성이 우려되나, 전년동월대비로는 2.3%의 여전히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

< 소비지표 >



주 : 소득 및 소매 판매 전년동월대비
자료 : 컨퍼런스보드, BEA, 美통계청

< 고용지표 >



주 : 시간당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
자료 : 美노동부

□ (전망) 해외 IB 및 주요 기관들은 '19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평균 2.5%로 다소 둔화하겠으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
<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>

(단위 : %)	2019					(단위 : %, %p)	2019	
	1Q	2Q	3Q	4Q	전망치		이전 대비	
Barclays	2.8	2.5	3.0	2.5	2.0	OECD('19.3)	2.6	△0.1
BoA-ML	2.2	2.0	2.5	1.9	1.9			
Citigroup	2.6	2.1	2.8	2.0	1.8	IMF('19.1)	2.5	-
Goldman Sachs	2.4	1.7	2.4	2.0	2.0			
JPMorgan	2.3	1.5	2.3	1.8	1.8	World Bank('19.1)	2.5	-
Nomura	2.5	2.1	2.0	1.8	1.9			
Societe Generale	2.9	2.4	2.2	1.6	1.1	Fed('18.12)	2.3	△0.2
Wells Fargo	2.5	1.9	2.8	2.4	2.4			
평균	2.5	2.0	2.5	2.2	1.9	평균	2.5	

자료 : 블룸버그(IB, 3.5일 조회기준)

주 : 단순평균, 자료 : 각기관

(작성자 : 경제금융팀 대리 김상유 sykim1111@ibk.co.kr / ☎02-729-6196)